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찬 양 I. 은혜만이 마중물찬양대
 II.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청파찬양대

말 씬 바빌론에서 나오라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 함께

2부찬 송 449. 예수 따라가며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바빌론에 없
 습니다. 바빌론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광
 야와 사막을 지나게 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없음에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바빌
 론을 떠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거짓 자
 유와 거짓 평화의 땅인 바빌론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
 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
 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쉽

낮집회 / 설교 : 김재홍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 의 : 이재훈 목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공생애의 핵심적인 순간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의 말씀을 들으시던 때였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적 체험이다. 그분은 자신의 참 존재를 깊고 깊은 방식으로 일깨움 받으신다. 광야의 시험은 그분에게서 그 영적 정체를 앗아가려는 유혹이다. 자신을 다른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이다. ‘너는 돌들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자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이다. 다른 사람들로 네 권세에 절하게 만들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전 생애는 범사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이 정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분이 칭찬받으실 때도 있었고 멸시받거나 거부당할 때도 있었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리겠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그 정체 속에서 발견된 희망이다.”

그렇다면 기도란 그 음성, 나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참 존재의 실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하는 말이 있으나 그것도 내가 아니다. 내 소유도 내가 아니다. 성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영적 정체의 뿌리는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이 내게 주는 것들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의 뿌리는 내 영적 정체에 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꾸준히 그 핵심 정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 거기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기 원하신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며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를 알게 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신비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좀더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우리 자신을 점점 알아가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을 조금씩 떨치게 된다. 그리고 불안이 조금씩 사라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 알게 되며, 사랑의 하나님께 알려지고 싶은 마음도 더 간절해진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수록 우리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의 열매이다. 이제 우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지상최고 계명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놓을 때 자신을 사랑하게 되며,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때 또한 동료 인간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임재를 배우며, 그 영적 지식을 통해 비로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

- 헨리 나우웬, 「기도의 삶」(복있는사람) 중에서

사과를 먹으며

함민복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마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영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빛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형은 김용길 최영혜 김정린 김정훈 이진영a김준호 광혜자 김중수 이순정 김지현b
김형욱 문은지 박상욱 임서영 박준민 최광희 배강우 배삼순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사혜리 사은기 이미경 서원금 손연우 송정근 이소선 심창현 심해성 안미숙 오유경
김현동 오은영 유명호 지성진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재선 이한림 김명희a
이현죽 임진엽 장병준 박소현 장영숙 전찬익 이은자 정성식 정영례 정원석 김현영
정재기 조경환 조두희 오연훈 조미선 조순덕 최옥자 최정우 이윤숙 최형민 한나영
한봉섭 한선희 허호범 박성실 현 진 무명

감사헌금

김예찬 김일재 김정린 김태정 박병구 김인순 손숙영 송병찬 안민호 양순자 유명호
지성진 유수진 이고임 이상도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임영선 임종수 임형욱 정상준
정용구 이삼남 정현모 조혜정 채일석 최혜정 황경순 (고)김철수가족 마중물찬양대
무명2

생일감사헌금

문홍일 이왕준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용길 최영혜 김일재 신영신 이고임 함정희 무명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예배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점심식사 : 오늘은 명절 연휴 관계로 교회에서 점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2. 기독교교육진흥주일 : 오늘은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3.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수요저녁성경공부 : 9월 18일부터 수요저녁성경공부(오후 7:30)를 시작합니다. 이재훈 목사가 <성경 인물들의 투쟁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8주간 강의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019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수거함(1층 로비)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6. 바자회 물품 받습니다 : 여선교회에서 은퇴 여교역자 안식관 건축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10월 6일에 엽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사용 가능하고 깨끗한 것)을 기증받습니다. 기증하실 분은 물품을 9월 22일과 29일에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7. 결혼 : 김명환 씨와 이인경 씨 (최윤희 권사 딸)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1일(토) 오후 1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8. 신앙실천 : 산책하기 좋은 가을날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천천히 걸어보세요.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행 18:5-12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장원호	김지현	김재홍
9월	1부 영접위원	김정우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임주빈	한성건 최현옥 최승주	허희라	
	2부 헌금위원	안종일 박미영			
식당봉사	오늘 (없음)				
	다음주 최현옥 김신실 안상숙 공재량 허희라 남윤경 임주빈 이주경				
설거지봉사	(없음) 다음주 4여선교회 커피봉사 (없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